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2호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
1945-1960년대 사진계의 활동과 동향

페이지	줄 (또는 위치)	교정 전
13	25-26	(채록 불가)
13	각주3)	1946년 조선사진예술연구회(현 대한사진예술가협회)의 창립을 주도했으며
13	각주4)	1946년 이해선, 김정래, 박필호 등에 의해 조선사진예술연구회(朝鮮寫眞藝術研究會)로 창립, 1949년 대한사진예술연구회, 1957년 대한사진예술가협회로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4-15	22-3	이동호(李東浩) 씨, 이수영이, 또 장모 씨, 또 윤은준이 이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보스가 이동호 씨라고, 그 분이 제일 보스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수영이, 장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윤은준이. 이 네 사람이 그걸 맡아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을 했다고.
16	28	임 선생을
17	20	그때 조선사진예술연구회,
17	30	및 사람이
17	각주17)	『문예진흥』, 1985. 8, pp. 78-79.
21	각주19)	부회장 최계복, 임응식,
24	11	정전이 됐고,
25	13	이래 가지고 세력이 몰린 사람들이
25	각주26)	초대 회장을
29	15	안월산(安月山, 1909-1969)
30	12	책 안 보는 문화인데.
31	29-30	선언할 적에...
32	10	노산 이은상이
35	11	사진작가뿐만 아니라,
35	34	예총 정관을 하니까
37	8	창작사진가협회를36)
37	10	이형록37) 씨
37	17-18	김종양38) 씨가
37	각주36)	36)
37	각주37)	37) 이형록 [...] 1957년 신선회를 비롯, 싸롱아루스 등을 창립, 지도했다.
37	각주38)	38)
37	29	《국전》39)이라는 건,
37	각주39)	39)

교정	비고
좌우익 그런건 없었어요.	
[출처마다 창립연도 상이]	*자료집 제1호 정오표-페이지59-비고란 참고 (본 자료집 11-13쪽).
[출처마다 창립연도, 개칭연도 상이]	* '조선사진예술연구회'의 창립연도는 위 주를 참고. * '조선사진예술연구회'의 개칭연도는 자료집 제1호 정오표-페이지60-비고란 참고(본 자료집 13쪽).
이동호(李東浩) 씨, 이수형이, 또 장 모 씨, 또 윤은중이 이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보스가 이동호씨라고, 그분이 제일 보스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수형이, 장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윤은중이. 이 네 사람이 그걸 맡아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을 했다고.	* 임석제는 문진양행은 이동호가 대표를 맡고 박명수, 이수형, 윤은중, 김종각 4명과 함께 그대로 인수받았다고 회고했다. 임석제, 『임석제가 기술한 한국사진 역사』, 『한국사협』 (제156호), 1993년 6월, 78쪽.
임[응식] 선생을	
그때 산하 단체들이 조선사진예술연구회,	
몇 사람이	
『문화예술』, 1985. 9, pp.78-83.	
부회장 임응식,	* 한국사진작가협회 편저, 『한국사협50년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출판부, 2013, 99쪽.
점점 됐고,	
이래 가지고 세력으로 몰린 사람들이	
초대 이사장을	* 한국사진작가협회 편저, 『한국사협50년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출판부, 2013, 480쪽.
안월산(安月山, 1909-1978)	* 안월산은 1977년까지 한국사진작가협회 고문을 역임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편저, 『한국사협50년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출판부, 2013, 481쪽.
책 안 보기로 유명한데.	
스트라이크(strike)할 적에...	
노산[이은상]이	
사진작가도 아니라,	
예총 정관을 보니까	
창작사진가협회를	각주36) 삭제.
이형록36) 씨	각주번호 수정.
김종양37) 씨가	각주번호 수정.
40)	각주번호 수정 후 페이지 38, 15번째 줄 '종합전시' 각주로 추가.
36) 이형록 [...] 1956년 신선회를 비롯, 싸롱아루스 등을 창립, 지도했다.	각주번호 수정 외.
37)	각주번호 수정.
《국전》38)이라는 건,	각주번호 수정.
38)	각주번호 수정.

페이지	줄 (또는 위치)	교정 전
38	13	장발40) 씨가
38	15	종합전시를
38	각주40)	40)
38	28-29	<고물상 노인>이라는 걸로 입선이
42	16-17	박정희는 못 만났고,
43	21	다 타고 이랬으니까.
45	18	빌려서 쓰더라고.
45	31	부산에 오니까,
46	23, 각주50)	유재홍
47	27	너 식당 지배인 좀 해볼래?," "그래? 무슨 지배인?
52	각주59)	아사히신문사 주최
63	각주65)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협사』, 2001. pp.88-89)
63	31	그런 데 에서
64	18	생활 리얼리즘이라고
65	22	발기를 했던 분이 정회원입니다.
67	각주69)	각주 36 참조.
70	도판 캡션	뒷줄 000. 000, 김열수,
70	12	달랐으므로
76	26	여러분이
78	4	한국사진작가협회라는
82	8-9	(채록 불가)
82	각주80)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83	도판 캡션	샤롱아루스 동인전을 보고
84	각주81)	마가렛 버크-화이트(Margaret Bourke-White, 1904-1971).
89	25	50년
93	7	이수영이라는
95	각주84)	대한미술가협회(大韓美術家協會).
96	각주86)	이경성은 1960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를 조직했다.
100	33	미키 준이 했을, 했을 거예요.
102	3-4	고단사(講談社)라는

교정	비고
장발39) 씨가	각주번호 수정.
종합전시40)를	각주 추가. 이전 페이지 각주36번을 40번으로 수정하여 추가.
39)	각주번호 수정.
<고물상 노인>이라는 걸로 신선회에서 입선이	
박정희 때는 못 만났고,	
보급은 다 타고 이랬으니까.	
빌려서 쓰더라고, 사무실을.	
부산에 가니까,	
유재홍	
너 식당 지배인 좀 해볼래?" 그러더라고. "그래? 무슨 지배인?"	
아르스(ARS)사 주최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협사 1945-1970』, 2001. pp.88-89)	
그런 데다 가서	
생활적인 리얼리즘이라고	
구분은 발기를 했던 분이 정회원입니다.	
각주 40 참조.	각주36)은 각주40)으로 수정.
뒷줄 000. 000, 000 , 김열수,	
틀렸으므로 [달랐으므로]	
여러 군데	
한국사진작가협회 라는	
이런 애들 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샤롱아루스 동인창립전 을 보고	
마가렛 버크-화이트(Margaret Bourke- White , 1904-1971).	
50년대	
이수형 이라는	*본 정오표-페이지14-15-비고란 참고(본 자료집 25쪽).
대한미술협회(大韓美術協會).	
이경성은 1956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를 조직했다.	*「미술평론가협회 결성」, 『조선일보』, 1956. 12. 11; 이경성, 「미술계 1년의 회고」, 『신미술』, Vol.3, 1956년 12월;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한국현대미술사사전 1945-1961』, 열화당, 2006, 428쪽.
미키 준이 아마 했을, 했을 거예요.	
고단사(講談社) 라는	

페이지	줄 (또는 위치)	교정 전
102	10	내리마(동경의 지역명)에
110	4	관여하셨다면, 어떤 한국 작가라도
112	28	동원한
116	20	안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116	각주103)	1952년 사진부가 편입되어
122	우단 6	고단사(講談社)에서
122	우단 8	1971-1974 《제1회 건축 및 사진 전람회》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123	좌단 4	오사카 쇼젠중학교
123	좌단 16	법무부 사법보호회
123	좌단 37	귀성객 압사사건
123	우단 23	《제5회 대한민국사진전람회》
124	좌단 6	신선회 발표회에서
124	좌단 22	김열수, 「신선한 각도」, 『민국일보』, 1961.10.26
124	좌단 23	싸롱아루스 동인전을 보고
124	우단 15	리얼리즘의 기수
124	우단 16	2006.4.23
124	우단 23	「제1회 신선회 사진발표전 소식」,
124	우단 25	「신선회 제1회전 화보」, 『사진문화』(7호)
124	우단 29	1967.2
125	좌단 22	임영균,
125	좌단 24	「이명동 사진론집-사진은 사진이다」,
125	우단 2, 3	「정범태 사진집 1950~2000」,
125	우단 8	「한국의 1950년대 리얼리즘 사진에 대한 소고」,
126	좌단 3	「세기적인 대사진전 인간가족전(계속)」,
126	좌단 4	「세기적인 대사진전 인간가족전」,
126	좌단 26	경복궁서
126	우단 11	「The Korea Times」,

교정	비고
내리마(練馬, 도쿄의 지역구)에	
관여하셨다면, 대체되는 사진에 어떤 한국 작가라도	
도모한	
안 줄 수가 없지. 탁 [지면 달라고] 하면, 아- 좋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1953년 사진부가 편입되어	*일본 사단법인 이과회 사진부 홈페이지 http://www.nika-shashin.or.jp/ (2017.5.20); '1953 (소화28)년 9월 《제38회이과회》(도쿄도미술관, 9월 1일~ 19일) 사진부 신설.', 『일본사진사연표』, 『日本の写真家別巻-日本写真史概説』, 岩波書店, 1999, 22쪽.
고단사(講談社)에서	
1971 《제1회 건축 및 사진 전람회》 심사위원 1972 《제2회 건축 및 사진 전람회》 초대작가 1973 《제3회 건축 및 사진 전람회》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1974 《제23회 국전》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1975, 1976, 1978 《제24, 25, 27회 국전》 초대작가 1980 《제29회 국전》 심사위원	
오사카 쇼젠중학교	
법무부 사법보호협회	
귀성객 압사 사건	
《제6회 대한민국사진전람회》	
신선회 발표회에서	
「신선한 각도, 싸롱아루스 사진전」, 『민국일보』, 1961.10.22	
싸롱아루스 동인창립전을 보고	
리얼리즘 사진의 기수	
2006.4.19	
「사단뉴스-《신선회 제1회 사진발표전》」,	
「《신선회 제1회 발표전》에서」, 『사진문화』(7호), 1957.7	
1967.1-2	
임영균 엮음,	
「이명동 사진론집-사진은 사진이어야 한다」,	
「정범태 사진집: 카메라와 함께 한 반세기 1950~2000」,	
「한국의 1950년대 리얼리즘 사진에 대한 고찰」,	
「세기적인 대사진전 《인간일가》=(THE FAMILY OF MAN)=」,	
「세기적인 대사진전 《인간일가》」,	
덕수궁[경복궁]서	
「The Korea Herald」,	

페이지	줄 (또는 위치)	교정 전
126	우단 16, 25	인간가족사진 지상전시회
126	우단 18	인간가족사진 지상전시회2- 희망의 싹이러니
127	1-3, 7	인간가족사진 지상전시회
128	좌단 14-18	<그린죽대>, [...] <맹아학교에서>, [...] <오늘의 감성>
128	우단 5-6	익숙지 [...] 되었으니
128	우단 11-13	<수>, [...] <심중>, [...] 조연섭
129	좌단 5-8	<염색장>, 이국성 [...] <공원양상>, [...] 조연섭 <감복>
129	우단 2	1961.9.28-10.4,
129	우단 5	<발레>,
130	우단 1	싸롱아루스 동인전을 보고
131	좌단 2	「세기적인 대사진전 인간가족1」
131	좌단 4	「세기적인 대사진전 인간가족2」
131	좌단 9-11	인간가족 사진전시회를 [...] 서러움 그리고 공통된 열망에 있어서
133	좌단 12	스타이첸이
133	우단 6	테프를
133	우단 16	테이프를
133	우단 19	503점의 작품이
134	좌단 6	스타이첸의
134	우단 4-15	다우링 미국대사부처, 콜러 운크라 단장 [...] 흥의 테이프를 [...] (사진=전시회를 감상하는 이대통령, 테이프 끊는 이대통령)
134	우단 19-22	비슷한 [...] 근대미술관에 [...] 있어서의 은
137	좌단 15-29	이수강 <양떼의 행렬>, [...] <여정>, [...] 오승강 <노상>, [...] <강아지>, <건어장의 노도>, [...] 박상하 <환상>, [...] 임범택 <소년>, [...] <소녀상>
138	좌단 12	적절한 조치를
139	좌단 3-12	앞두도 사진부문의 추가편입을 [...] 예술원장, 공보처 등
139	우단 11-12	국내외 발표를 가진 사진작가들의
140	좌단 10	출품작이 많아
141	좌단 2-3	
141	좌단 5-9	특선작가 가운데 [...] 대통령상의
142	5, 8	더욱이
142	11	뉴앙스를
142	12	눈에 띄게 쓰이게 된

교정	비고
인간가족사진 지상전람회	
인간가족사진 지상전람회2- 희망의 싹이러니	
인간가족사진 지상전람회	
<그린죽대>, [...] <맹아학교에서(맹부)>, <맹아학교에서(농부)>, [...] <오늘의 감성>	
익숙지 [...] 되었으나	
<수(樹)>, [...] <필중>, [...] 조정섭	
<염색장>, <안경>, 이국성 [...] <공원양상>, [...] 조정섭 <감회>	
1961.10.19-10.25,	
<바레[발레]>,	
싸롱아루스 동인창립전을 보고	
「세기적인 대사진전 《인간일가》=《THE FAMILY OF MAN》=」	
「세기적인 대사진전 《인간일가》」	
《인간가족(人間家族)》 사진전시회를 [...] 서러움과 그리고 공통된 열망에 있어	
스타이첸이	
‘테푸[테이프]’를	
‘테-푸[테이프]’를	
502점(七■)의 작품이	
스타이첸의	
다우링 주한미대사부처, 콜러 운크라 단장 [...] 흥의 ‘테-푸[테이프]’를 [...] (사진=上) 전시회를 감상하는 이 대통령, (下) ‘테-푸[테이프]’를 끊는 이 대통령)	
비슷하여 [...] 근대미술관에 [...] 있어서의 감정과 여러가지 상세한 부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진작품은	
이수강 <양 떼의[양 떼의] 행렬>, [...] 이정강 <여정>, [...] 오승현 <노상>, [...] <강아지>, 김갑연 <건어장의 노도>, [...] 배상하 <환상>, [...] 임범택 <소년들>, [...] <소녀상>, 한규성 <삶>	
적절한 조치를	
앞두도 사진부문 추가편입을 [...] 예술원장, 예총, 국회문교공보위원회, 공보부 등	
국내외 발표 실적을 가진 사진작가들의	
출품작품이 많아	
모두 6백 15점 특선 75점, 조각부문서 하오에 대통령상 결정	삽입.
특선작 가운데 [...] 대통령상 등의	
더욱이[더욱이]	
뉴앙스[뉴앙스]를	
눈에 띄이게 쓰여지게 된	

페이지	줄 (또는 위치)	교정 전
142	15	전시회에 [...] 입선한
142	17, 27	쓰이게 된
142	21	지도부들이 [...] 쓰이게 되었다는
142	22	오랫동안
142	24	화조풍나적
142	25	회화적인 [...] 더욱이
142	30	쓰이는 예술사진이나 픽토리얼 포토그래피와
142	31	보류로
142	32	사진표현과
142	33	픽토리얼 포토그래피의
142	35	말엽부터
142	36	지배하던
143	2	가지고 있는가?
143	4	빛으로서 형상을 표현하려는 양
143	5	안개가 덮인 것과
143	6	확립하려는데 있다.
143	7	따라서 회화주의적인
143	8	물체주의로부터도 멀리되고 '사진의 주제는,
143	9	밸런스라고
143	10	다분히
143	14	그 작품의 특징은
143	15	본질적으로
143	17	터치의
143	18	그러나 내용에
143	19	분위기주의이고 화조풍나적인
143	23	에드워드 웨스턴의
143	25	요컨대
144	18	보도되므로
144	19	차마
144	23	후랏쉬가
144	26	지프차에
144	27	저기 있다!
144	30	비로서

교정	비고
전람회에 [...] 입선할	
쓰여지게 된	
지도총들이 [...] 쓰여지게 되었다는	
오랜동안[오랫동안]	
화조풍자적	
의화적(擬畫的)인 [...] 더우기[더욱이]	
쓰여지는 예술사진이나 픽토리얼 포토그래피와는	
별도로	
사진표현과의	
픽토리얼 포토그래피(회화적 사진)의	
말경부터	
지배하던[지배하던]	
가지고 있었는가?	
광(光)으로서 형(形)을 표현하려는[표현하려는] 양	
안개가 덮힌[덮인] 것과	
확립하려는데[확립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이 회화주의적인	
물체의식으로부터도 멀리되고 '사진의 주제는,	
발란스[바란스]라고	
다분히[다분히]	
그 작품의 특징은	
본질적으로는	
터치[터치]의	
그러나 그 내용에	
분위기주의이고 화조풍자적인	
에드워드 웨스턴[에드워드 웨스턴]의	
요컨대[요컨대]	
보도되므로서	
차마[차마]	
후랏쉬[플래시]가	
짚차[지프차]에	
저깃다[저기 있다]!	
비로서	

페이지	줄 (또는 위치)	교정 전
144	34	그때 이미
145	1	되었다.
145	6	이런 땐 으레히
145	11	기자들이 모두 철수를 하고
145	12	떨면서 제 6번
145	13	승차를 앓고 있었다.
145	14	개찰구는 순시에
145	19	플랫폼이라
145	20	수복이
145	23	움직이듯이
145	25-26	후랏쉬를

교정	비고
그때는 이미	
됐다.	
이런 땐 으레히[으레]	
기자들은 모두 철수하고	
떨면서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제6번	
개찰을 앓고 있었다.	
개찰을 하지 않는가. 귀성객들이 밀고 떠밀어 개찰구는 순시에	
푸레트폼[플랫폼]이라	
수복히[수복이]	
움직이듯	
후랏쉬[플래시]를	